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전(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3월 29일 (제787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값과 가치

값과 가치는 항상 비례할까? 비싼 것이 더 높은 가치가 있을까? 우리 옛말에 '싼 게 비지떡'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 요즘 사람들은 '값과 가치'를 혼동하고 있다. 비싸야 가치도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값과는 별도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다.

나는 가치를 활용도라 본다. 모든 집들이 한 달 간격으로 전기료를 낸다. 그런데 태양이 주는 빛의 값은 없다. 그렇다고 가치도 없으랴! 그 활용도가 엄청난 것인데... 예전 경부고속도로를 뚫을 때 비용을 따지며 극구반대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고 나니 창출된 가치가 값을 뛰어 넘지 않았는가.

성경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온다. 그녀는 어리석은 남편을 대신해서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한다. 그녀가 내민 음식을 계산해보면 별 거 아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따질 수 없는 귀한 것이 되어 그녀를 다윗 왕의 아내가 되게 한다. 왜? 값은 외관이고 가치는 중심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직원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은 직업 이상의 사명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하는 일이 샅 이상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돼지 같은 자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마7:6). 돈을 따지며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일을 맡기지 말라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값없이! 그러나 그것이 값없다고 무가치하다고 어느 누가 말할 수 있을까. 고난주일을 맞아 값없이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부족한 사랑이나마 주님께 바친다.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졌다

연일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소경이 눈을 뜨며,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성령의 대역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목사님은 계속해서 외치고 또 외치셨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DNA가 잠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한다면, 우리 앞에 넘지 못할 벽이란 없습니다." 목사님의 일관된 메시지는 잠자던 영성을 깨우고, 흐트러진 삶의 기초를 재건축

치며 경청하였고, 통성기도시간에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쉿소리로 부르짖고 있었다. 실업인 세미나에서도, 야외집회에서도 맨 앞자리를 지키며 은혜를 사모하였고, 엑포르 집사와 함께 몬테레이에서 가장 고급스런 레스토랑으로 두 번씩이나 우리 일행을 초청하여 대접까지 하였다. 목사님 말씀 중에 "은혜를 받으면 주머니가 열린다."는 이야기가 실감되었다. 그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떠나려는 목사님께 출발 전날, 자신의 교회에서 설교해줄 것을 강청하였다. 먼 길을 떠나기에 앞서 좀 쉬고 가면 좋으련만 목사님은 별 수 없이 끌려가셔야 했다. 그들은 저녁에 잠깐 설교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할지

그리고 또 한 사람, 엑포르 집사. 그는 2006년 메리다(Merida) 집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이후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집회에 참석하며 남미선교팀의 일원으로 활약하며 우리의 엔돌핀으로 기쁨을 주곤 했었다. 그러나 그의 사업 파트너의 배신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한 동안 집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목사님도, 우리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다. 목사님을 도와 일하는 자들이 영·혼·육 모든 면에서 승승장구하길 바라는 것이야 당연지사 아니겠는가. 목사님은 중남미 집회 때마다 엑포르에 대해 걱정하셨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멕시코 몬테레이 주일집회 광경(로베르토 목사 교회)

하는 에너지가 되고 있었다.

이번 멕시코(Mexico) 몬테레이(Monterrey) 집회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인물은 집회주관자인 로베르토(Roberto) 목사가 아니라 옮겨버격으로 참석하신 사무엘(Samuel) 목사였다. 엑포르(Hector) 집사의 담임목사이기도 한 그는 매우 점잖은 타입의 목회자인데, 공황영접부터 목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빠짐없이 계속 출현하며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자주 느끼는 바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따로 있다. 목회자 세미나에서는 맨 앞자리에 앉아 큰소리로 아멘을 외

모르나 목사님은 그 한 번의 설교를 위해 꼬박 반나절을 기도에 몰입하셔야 한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튼 사무엘 목사는 고별만찬 후 가진 간증시간에 이렇게 고백했다.

"저는 오래 전부터 목사님을 알고 있었고, 많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이번처럼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졌다'는 말씀은 제 인생이나 제 목회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DNA를 마음껏 발현하는 삶과 목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만난 엑포르 집사는 완전히 첫사랑을 되찾은 모습이었다. 그의 사업도 번창하고 있고, 가정도 매우 화목해보였다. 목사님 기도의 응답이었다. 부춘 타운 안에 자리 잡은 그의 저택에 초청을 받아 갔더니 만찬파티에 초청 받은 많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의 완벽한 재기는 목사님의 큰 기쁨이 되었다. 마치 마음의 커다란 짐을 더신 양, 목사님은 이번 집회 기간 중에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였다. 바로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기쁨이 아니었을까!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더러운 귀신이 드려나 소리를 지르며 요동한다



이번 집회의 주역들과 함께(바로 뒤가 사무엘 목사, 왼쪽에서 세 번째가 엑포르 집사)



휠체어에서 일어나 목사님을 태우고 행진하고 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롬9:1~24)



개혁과 혁신은 동일한 것이다

개혁(改革)이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관행, 잘못된 환경, 잘못된 습관을 깨는 것입니다. 이는 혁신(革新)이라는 말과 상통합니다. 묵은 풍속, 잘못된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이 되면 농부가 땅을 갈아엎고 씨앗을 뿌리듯, 지금 영·혼·육에도 묵은 지경을 갈아엎는 개혁, 혁신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개혁'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히9:9~10). 구약시대 제사장을 통한 제사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는 예배라 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불완전한 규례들과 의식들로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온전히 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도록 개혁하신 것입니다(히9:12).

성경에는 혁신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4:22~24). 잘못된 습관을 잘라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개혁이나 혁신은 외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으로부터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등등, 과거의 인습을 버리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막9:43~47). 이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거듭나다'라고 말씀하셨고(요3:7),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혁신의 혁은 가족 혁(革)입니다. 때만 벗겨내는 묵욕 정도가 혁신이 아닙니다. 가족까지 벗기는 대변혁이 혁신입니다.

다.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다. 나의 죄는 부도, 남편도, 아내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

신이 제일 잘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 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대 사도 바울도 남이 모르는, 자신만이 아는 옛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7:23~24)고 탄식했습니다. 고로 나만이 아는 나쁜 습관, 타성에 젖어 있는 것들을 과감히 깨트려야 합니다.

개혁이나 혁신은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나 기업이나 국가도 혁신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관행이나 구습에 사로잡혀 있다면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1900년대 2,000여석의 화려한 오페라하우스

(Teatro Colon)를 건설할 정도로 세계 5대 부국 중의 하나였던 아르헨티나가 오늘날 왜 저렇게 낙후된 나라가 되었습니까? 개혁하고 혁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연한 부정부패를 잘라내지 못했기 때문에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반면 싱가포르의 아시아의 극빈국이었던, 얼마 전 타계한 리관유가 고질적인 병폐였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입에 칼을 물고 혁신운동을 벌였기에 오늘날 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성도 하나가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상담할 때 저는 남편과 살던 집도 팔고, 남편과

관련된 것을 다 바꾸고 풀으라고 했습니다.



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굽이 좋았어, 그 때가 좋았어' 하며 매일 과거에나 연연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이르는 길이 그리 멀었던 것입니다. 잘라낼 것은 잘라낼 줄 아는 혁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눅5:38)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쁜 습관 하나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때문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덕분에'라고 바꾸고 개혁한다면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고, '~덕분에'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육에 감히 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때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은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후11:23~27). 그러나 그는 '~때문에' 내가 힘들고 죽을 뻔 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 덕분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의 대상이 된다

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2~13)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덕분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고, 삭개오는 키가 작은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집에 모실 수 있었고(눅19),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덕분에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고(삿11), 룯은 과부가 된 덕분에 보아스 같은 남편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으며(룻4), 에스더 역시 고아여서 사촌 오라비 손에 키워진 덕분에 왕비에 올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에2). 우리나라 역시 북한이 있기 때문에 국방력을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교단으로부터 이단이라며 국내 집회를 방해한 덕분에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멕시코 집회에서 집회 기간 동안 비가 오고 바람이 분 덕분에 제가 더 많이 기도했더니 소경이 세 명이나 눈을 뜨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들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암이 걸리고, 기업이 암이 걸리고, 가정이 암이 걸리고, 영혼이 암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것들은 개혁을 넘어 혁신하여 영·혼·육에 성공을 이룹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 할렐루야!

환자에겐 위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것이다

고 자신을 개혁해야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된 관행을 방조 해주거나 방치하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영·혼·육을 죽이는 암적 존재로 돌변하고 맙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그 증거입니다. 바늘도둑일 때 잘못된 습관을 뿌리 뽑아야 하는데, 그것을 내버려두니까 결국 소도둑까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개혁과 혁신을 강력하게 주장하셨는가는 마가복음 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희망의 봄

19세기를 대표하는 인상파 화가 반 고흐는 말년에 이르러 몇 년간의 파리생활에 지치고 낙담하여 건강마저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3월의 어느 따사로운 봄날, 가방 하나만을 챙겨든 채 무작정 파리를 떠나 지중해 연안 프로방스의 한 작은 마을로 갔습니다. 과수원의 꽃나무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모습을 본 그는 새로운 의욕과 희망에 부풀어서 꽃나무를 소재로 한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분출하는 생명력과 온갖 색채의 향연에서 그는 삶의 새로운 환희를 느꼈고 그것을 캔버스에 옮겼습니다. 한 달 동안 그가 그린 그림은 14점에 이르렀고 이 작품들은 불후의 명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들녘이나 산비탈에서 소박한 모습으로 피어나는 야생화는 춤고 긴 겨울을 견뎌내고 살아났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맨 먼저 전달하는 봄의 전령사입니다. 야생화와 더불어 광양 매화꽃, 구례 산수유 꽃, 제주 유채꽃, 고려산 진달래꽃, 황매 산철쭉, 진해 벚꽃 등 각종 봄꽃 축제들이 전국을 화사하게 일깨워 줍니다. 나뭇가지는 따사로운 햇빛을 받아 연초록 망울을 터트리고 아지랑이가 기운을 잔뜩 뿜어냅니다. 봄은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과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어려움 때문에 불평불만을 품고 있나요? 사업이나 가정의 문제가 있어 괴로움을 당하고 있나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나요? 하나님은 봄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

스는 “고통은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연단을 통해 감사를 배우게 하여 궁극적으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고통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희망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쥐를 독안에 넣고 뚜껑을 완전히 닫아서 전혀 빛이 들어가지 않게 두면, 쥐는 3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동일한 독에 뚜껑을 조금 열어서 빛이 약간 들어 가게 해주면 36시간을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으면 쥐는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게 되어 일찍 죽게 되나, 빛이 있으면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어 먹을 것도 없는 동일한 상황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쥐에게 있어서 햇빛은 희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절망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빛과 희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생명 되시는 빛이 우리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희망을 찾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뜻에 따라 살고 있지 않나요? 감사보다 불만을 먼저 내세우지 않나요? 사랑을 주는 것보다 받기를 더 원하는 것은 아닌가요?

따사하고 화창한 이 봄날에 꽃길을 걸으며 근심과 고통을 봄바람에 다 날려 버리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온 누리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이관섭 장로
kwansup1029@gmail.com

그래도~

동물을 파는 가게 문 앞에 ‘강아지 팝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 소년이 가게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저씨! 지금 제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않아서 살 수는 없지만 강아지 구경 먼저 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가게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강아지 여러 마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의 눈을 끈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소년은 그 강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 강아지는 어디 아파요?”

“그 강아지는 선천적으로 엉덩이 관절에 이상이 있어 절뚝거린단다.”

설명을 들은 소년은 흥분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 이 강아지 사고 싶어요.”

“애야, 불구가 된 강아지를 돈 받고 팔 순 없어. 그냥 가져가거라.”

소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강아지도 다른 강아지들처럼 똑같은 가치를 지닌 강아지예요. 그러니 값을 전부 내겠어요. 지금은 8천원 밖에 없지만, 나중에 더 드릴 게요.”

“애야, 그냥 가져도 돼. 정상이지도 못한 강아지인데 괜찮아.”

그러자 소년은 자기가 입고 있는 바지 한 쪽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의 다리는 금속 고정기로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쪽 다리가 불구지만 그래도 건강한 아이나 다름없이 저희 집에서는 가치 있는 아들이거든요.”

당신이 비록 장애를 가졌더라도 당신은 하나님께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비록 지식이 없다 해도 당신은 하나님께 진정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요? 하나님은 없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중심편집실



::성경에세이::

은혜를 아는 자, 멸망하지 않는다

여보게!

요셉은 자네도 알다시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시기한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렸다네. 우여곡절 끝에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게 되었지. 그런데 요셉이 들어온 후로 보디발의 집이 만사형통한 거야. 보디발은 요셉이 보통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감지하고 모든 전권을 요셉에게 넘겨줬다네.

그런데 그 아내가 문제였네. 평소 외모가 출중하고 어디를 보나 노예로 살 사람이 아닌 듯한 인격을 가진 요셉에게 마음이 있던 보디발의 아내가 드디어 사고를 쳤네.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을 유혹한 거야. 그러나 어디 요셉이 넘어갈 사람인가.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노라’며 단호히 이를 뿌리쳤다지.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뿌리치고 나가는 요셉의 옷을 잡는 바람에 그만 옷이 벗겨졌지 뭐냐. 그런데 이게 화근이었네. 보디발의 아내가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거야.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고.

내 생각에 보디발은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을 걸세. 그러나 어찌했는가. 그래서 시위대 속에 가두었다네. 여기

서 부터가 내가 오늘 말하려는 것일세.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변명한 기록이 없다는 거지. 왜 그랬을까? 그가 욕에 갇히면서도 입을 다문 건 보디발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었던 거지.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보디발 때문에 그간 편히 살았던 것을 요셉은 감사했네. 그것을 보답하는 길은 입을 다물어 보디발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지.

여보게!

감사의 표본은 다윗이라네. 그는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했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감사를 잊지 않았지. 어디 그 뿐인가? 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감사를 알았던 자네. 다윗이 특별한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에게까지 감사했다는 거야. 성경에 구체적인 대목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준 것이 증거라네. 물론 사울이 하나님의 기쁨 부른 자여서 그러기도 했지만, 한 편으론 사울에게 받은 은혜 때문이기도 했지. 다윗이 유명해진 것은 골리앗

을 물리쳤기 때문인데, 그 기회를 준 것이 사울이었거든. 또한 사울이 그의 딸을 아내로 줬지 않은가. 나중 자신을 무조건 죽이려는 사울 앞에서 감사는 무색하게 됐지만, 다윗은 감사의 다른 이름인 의리로 관계를 지켜냈지.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잠10:2).

현대 망국병이 무엇인지 아는가? 감사를 모른다는 거야. 감사는커녕 열 번 잘해주다 하나 섭섭하면 배신하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세상이니 답답한 일이 아니겠나. 개도 주인을 안 무는데, 그 집에서 밥 먹고 살던 사람이 주인을 무는 일이 사회일각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하긴 저를 낳아준 부모도 죽이는 세상이니...

진정한 감사란 이것이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찌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렘3:17~18).

부디 자네는 감사하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그런 자는 결단코 멸망하지 않거든.

朋友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교회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전을 청소하는 분들이 그 대표적인 분들인데요. 인천교회는 예전부터 장로님을 중심으로 성전을 청소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만, 서울교회는 체육관을 쓰는 관계로 청소체계가 갖춰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두어 달 전부터 역시 장로님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청소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훨씬 상쾌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데이비드 조와이 그의 신간 ‘인비저블(Invisibles)’은 다방면에서 슈퍼스타와 천재가 난무하는 자기 과시와 명성의 시대에, 조용히 무명으로 지내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즐기며 깊은 성취감을 느끼는 조용한 영웅들에 대한 책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인비저블’은 외부의 찬사나 보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버린 사람들, 자기 일에 집중하고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막중한 책임을 지며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주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당신이 예수중심의 ‘인비저블’입니다. 또한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는 당신이 진정한 ‘인비저블’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찌니라”(눅17:10).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작년 8월, 저는 회사 대표님과 함께 출장을 가던 중 우연한 기회에 그분이 여호와의 증인에 출석하고 계시고, 어릴 때부터 그 종교에 몸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크게 개의치 않고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받은 생각과는 다르게, 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에 나오라고 전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편함이 없었기에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를 굳이 그만둘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디자인팀의 한 직원이 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대표님이 따로 조용하게 부탁하셔서 하는 일이 있는데, 조금 이상하다며 보여주는 제작물에는 '여호와의 증인 국제대회'라는 문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제작물을 보여준 후부터 마음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나도 알게 모르게 대표님이 지시하시는 일을 하며, 저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젠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고민만하고 있다가 어느 날 대학부 전도사님과 교육국 목사님께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교육국 목사님께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니 "하나님이 이제 너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싶으신가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다시 달라고 하실 때는 드리는 것이 맞다. 너의 생각으로는 너무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네가 가진

것을 드렸을 때에는 하나님이 예비해두신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거야. 회사는 그만 두는 것이 옳은 것 같구나. 계속 기도해 보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퇴사를 결정하기도 힘들었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그 후, 차근차근 구직 준비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 다.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 다. '너는 그렇게 기도모임에 참석하고 일주일에 4~5일을 교회에 출석하면서 받은 축복이 뭐냐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쩌지?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아빠는 나를 어떻게 보실까?' 등등, 시간이 갈수록 조급하고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박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붙잡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생애 처음으로 한 달 새벽기도를 결심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제일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무엇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드렸던 저의 정성, 저의 마음, 저의 찬양과 기도, 저의 예배를 당신은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 하나님도 저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세요."

그렇게 한 달간의 새벽기도를 마치고, 12월 말 무렵 저는 원하던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기쁜 마음으로 교육국 목사님을 찾아갔습니 다. "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던 회사에 합격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크게 기뻐하시면서 회사에 관하여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합격한 회사는 제주도에 위치하여 있었고, 합격을 확정 지으면 제주도에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목사님은 단호하

게 말씀하셨습니다. "경현아,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를 두고 기도한 것이 있다. 신앙 생활은 이곳에서 해라."

한 달간의 새벽기도 후에 받은 합격 통보였고, 원하던 회사였기에 그 결정을 막으시는 목사님을 사람의 마음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왕 순종한 거 끝까지 한번 순종해보자는 마음으로 합격한 회사에 입사 거부 의사를 밝히고 다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럴 거면 아예 합격을 시키지 마시지 합격시키시고 다시 달라고 하십니까... 하지만, 안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원망과 의지함이 섞인 기도를 하던 어느 날, 예전에 인턴을 했던 회사의 팀장님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 오케스트라 기획팀에서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듣는 순간 네가 떠올라 추천했다. 서류 접수하고 면접 보러 다녀와라."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기획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은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과 방법을 통하여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저를 신원하셨습니다. 작고 연약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 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전의 반전을 통하여 저에게 응답하셨고, 간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매일 크고 작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지금이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철저히 쓰임 받는 딸이 되겠습니다.

서울예수중심교회
대학부 김경현

서두르지 마!

인디언들은 먼 길을 말을 타고 단숨에 달려가는 일이 결코 없다고 합니다. 광활한 광야를 힘껏 달리다가도 가끔씩 말에서 내려 자신이 달려온 길을 되돌아본 후 다시 말에 올라타 갈 길을 재촉한다는 인디언들...

그 이유가 뭘지 아십니까? 말을 쉬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너무 급하게 앞만 보고 달리느라 자신의 영혼이 미쳐 뒤따라오지 못했을까봐 잠시 기다려 주는 것이라고 하네요.

우리의 삶도 인디언들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숨 가쁘게 바쁜 일상 속에서 앞만 보고 너무 빨리 달리느라 가장 소중한 내 영생과 주님을 향한 순수함은 잃어버린 채 그저 열심만 내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터키 속담에 '서두름이 악마를 발명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바쁘다면서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지만, 조금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것은 내 욕심이 만들어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거나보다 과연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방향이 올바르게 없다면 빠른 것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멀리서 보면 큰 강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강물은 목적지인 바다를 향해 유유히 묵묵히 흐르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거북이가 느리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그런 상황과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묵묵히 기어갑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쫓을 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던 것처럼, 느린 거북이가 빠른 토끼를 앞지를 수 있었던 것은 거북이가 목적만을 바라보고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그리고 분주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요?

Good News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농부 한 사람이 어느 날 도시에 나왔다가 점심때가 되자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이 식당으로 젊은이 여러 명이 들어와 농부의 맞은 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농부는 시킨 식사가 나오자 항상 그랬듯이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맞은 편 젊은이 중 하나가 큰 소리로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 시골 양반, 당신이 사는 동네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요?" 이 말에 시골 영감이 기도를 마치면서 뭐

라고 했는지 압니까?

"아니, 다 그러는 것은 아니야. 돼지들은 그렇지 않다네."

우리가 진정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장사한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만일 이 구원이 돈으로 하는 것이라면,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것이라면, 힘으로 하는 것이라면, 노력으로 하는 것이라면 과연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치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처럼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배운 것이 없는 사람도, 배경이 없는 사람도, 힘이 없는 사람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길은 너무 쉽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여러분도 이 한량없는 은혜로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예수가 필요
너와 나의 허물을 인함으로
예수가 상함
너와 나의 죄악을 인함으로
예수가 정결을 받음으로
너와 내가 평화를 누리
예수가 재림에 맞음으로
너와 내가 나음을 인함
(이사야 53장 5절)

너 위해 예수는 몸을 다했지만
예수를 위해 너는 무엇 드리는가?